

## IMA 크리티क्स

IMA 크리티क्स는 일민미술관의 시각문화 비평 연구 프로젝트다. 비평 및 편집 전문가를 초빙하여 글쓰기에 대한 원론을 되짚고 담론이 활용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나누며, 유의미한 비평의 결과물을 생산한다. 2022년에는 8인의 IMA 크리티क्स 연구자 김맑음, 김아영, 남은혜, 류희연, 송채정, 유승아, 이소임, 정수진이 활동한다.

## 송채정

송채정은 미술과 도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연구와 비평을 한다. 조경학을 전공하고 미술경영 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 비위계적 감각 세계를 향한 몇 가지 준비 운동

지금껏 세상과 조우하던 감각의 관성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감각 체계는 시간의 흐름과 축적 속에서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다. 우리는 감각에 있어 긴급한 것과 덜 긴급한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정상적인 것과 덜 정상적인 것을 끝없이 분별하며 감각의 위계를 사회적 관습으로 고착시킨다. 위계에 따라 우리는 보던 것만을 보고, 듣던 것만을 듣고, 감각하던 것만을 감각하며 평온한 나날을 살아간다.

그러나 관성은 물체가 균일한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인 동시에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 얼마든지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잠재성이다. 더 이상 아름답고 평화로운 일상의 '노래하기'를 거부한 오민은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힘의 작용에 의한 움직임을 선언한다. 의심이라는 책무를 지닌 예술가로서 그는 타성에 빠진 위계의 당위성에 의문을 품고 위계 없는 감각 세계를 향해 다가서기를 시도한다. 습관이 시간의 축적 속에서 굳혀지는 것이라면 오민은 시간의 선형적인 흐름을 거부하고 흐름의 결과로서의 축적을 파기하기로 한다. 노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만큼, 오민은 노래하지 않기 위해 정교한 준비 운동을 수행해간다.

### 준비 운동 하나. 시간을 감각하는 감수성의 논리 초기화하기

오민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엔트로피'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미래로 갈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낮은 질서를 의미한다. (중략) 내용이 무질서한 상태에 더 많은 정보가 있다."<sup>1</sup> 세 가지 명제를 종합하면 시간은 질서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정보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흐른다. 신작 <폴디드(Folded)>(2022)는

1. 여기서 인용한 문구는 오민이 2022년 1월 11일에 작성한 작가 노트에서 발췌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시간이 정보 간의 관계 구조라는 질서에 의해 흐른다면, 관계 구조를 조작해 시간을 순방향으로 흘리거나, 정지시키거나, 역방향으로 흘리는 가상의 실험이 가능하다.

〈폴디드〉에서 56초 단위로 짜인 16개 장면은 전시장 내 프로젝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동된다. 하지만 작업이 구현하는 화면과 소리의 복잡한 짜임새 속에서 우리는 선뜻 논리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타임라인을 맞닥뜨린다. 시간이 애초에 어떤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이리저리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간을 수식하는 가장 적절한 어휘는 더 이상 ‘흐르다’가 아닌 ‘운동하다’이다. 어떤 방향도 전제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운동성이 이번 전시에서 오민이 제시하는 시간의 본질적인 속성이자 시간 자체이다.

오민은 선과 덩어리라는 표현으로 〈폴디드〉가 지닌 시간의 운동성을 형상화한다. 선적인 시간은 지금껏 일상에서 인식하던 시간의 구조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선형적인 흐름에 기대 자의적인 서사를 구축한다. 역으로 자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로 타의적인 서사를 구축하며 올곧은 선형성을 부지하는 데 매달리기도 한다. 반면 오민이 작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덩어리적’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존의 시간 논리로부터 초기화된 몸과 마음을 통해 그려보아야 할 시간의 구조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서사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시간이라는 틀을 무수한 “지금-여기”<sup>2</sup>들의 집합체로서 의식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중횡무진하는 지금-여기들의 운동성과 그것들의 무한한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 준비 운동 들. 덩어리적 시간에서 부유하는 감각 재료 호명하기

지금-여기들의 관계 맺기로 영위되는 덩어리적 시간은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한 성질을 띤다. 때문에 덩어리적 시간관에서는 세상을 감각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배치해온 감각적인 정보, 즉 감각 재료 간의 위계를 단언할 수 없다. 오민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감각 재료 사이에 위계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는 우선순위에 따른 실용적인 정보 처리

2. "지금-여기"는 오민의 전반적인 작업 세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중략) 퍼포먼스와 시간기반설치 작업들을 해오면서 지금-여기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공간을 누비며 운동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의 리허설 후 진행되는 퍼포먼스의 수행에서 지금-여기는 지금-여기만이 아니고, 여러 과거 시점에서 이루어진 대화, 반복 수행, 결정들에 접속된 상태입니다. (중략) 촬영을 진행하려면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여기가 과거와 미래를 부단히 이동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맹나현, 오민, 『헤테로크로니의 헤테로포니』, 『퍼폼 PERFORM』, <https://www.performplace.org/pcs/헤테로크로니의-헤테로포니>

과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빠른 커뮤니케이션 속도에 집착할 필요도, 집착할 수도 없는 낯선 감각을 발생시킨다.”<sup>3</sup> 그러나 비위계를 지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만 분명 가치 있는 시도다. 이는 모든 재료들에게 균등한 주의를 환기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며, 이로써 좀처럼 알아챌 수 없던 재료가 수면 위로 불쑥 떠 오르기도 한다.

〈폴디드〉에서의 감각 재료는 여러 차원을 넘나든다. 예를 들어 퍼포머의 목소리는 여섯 명의 인물 중 누가 발화했는지 알 수 없고 의미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음성으로 등장한다. 현장의 소음은 퍼포머들이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분주히 움직이면서 겹겹이 쌓인다. 조명, 음향 장비를 들고 있는 테크니션들은 마치 무대 밖의 퍼포머와 같다. 그들은 과거에 습득한 지식, 현재에 처한 상황, 미래에 대한 예측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려보며 안무를 수행해간다. 하나의 카메라는 퍼포먼스 현장을 촬영하는 동시에 또 다른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어 작업 영상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영상의 편집 방식은 퍼포먼스의 물리적인 발생 순서에 따르지 않아 관객의 혼란을 가중한다. 〈폴디드〉는 물론 오민의 스코어(score)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퍼포먼스와 영상이라는 작업의 양식,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장소와 시각, 퍼포머가 구현하는 동작의 큰 틀, 영상의 솜을 끊어가는 시간의 단위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선택이다. 그러나 또한 오민은 스코어 곳곳을 험겁게 남겨두며 덩어리적 시간이 침투하기를 기다린다. 그 결과, 작업에는 그가 통제하지 않아 더욱 흥미로운 재료가 등장한다. 목소리부터 편집 방식까지, 시점(時點)과 관점이 마구 엉켜 있는 감각 재료들이 등장한다.

중요한 점은 〈폴디드〉에서 새롭게 등장한 감각 재료는 낯설 수 있으나 무에서 유로 빚어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통상 예술에 있어 “무가치하고, 눈에 띄이지 않으며, 흥미롭지 않고, 문화 외적이고,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덧없는 것들”<sup>4</sup>의 영역에 속해왔을 뿐이다. 보리스 그로이스(Boris Groys)는 이와 같은 영역을 “세속적 공간(profane realm)”<sup>5</sup>이라 명명한다. 그에 따르면 새로움이란 전에 없던 것이 급작스레 생겨나 등장한 것이 아니다. 새로움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것, 그렇기에 더욱 빠르게 존재감이 소멸되어 가는 것의 가치 위계가 전도되는 순간에 창출된다. 오민의 작업에서 바로 이러한 종류의 새로움이 발현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 오민은 우리가 선적인 시간에 매몰되어 미처 감각하지 못했던 덩어리적

3. 이 부분에 인용한 문구는 2022년 일민미술관 전시 《노래해야 한다면 나는 당신의 혁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에서 오민이 선보인 렉처 퍼포먼스 〈포스트텍스처(Post-Texture)〉에서 발췌했다.

4. 보리스 그로이스, 『새로움에 대하여』, 김남시 옮김(서울: 현실문화, 2017), 84.

5. 같은 책, 84.

시간을 세속적 공간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는 덩어리적 시간에서 부유하는 재료를 부단히 탐색하며 이름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재료가 흐릿한 기억 속에서 종적을 감추기 전에 재빨리 붙잡는다.

무언가를 호명하는 일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오민은 다공적인 스코어를 통해 마주한 미묘하고도 추상적인 감각 재료를 배제하지 않고 조심스레 영상 속으로 호명한다. 오민은 재료가 본래 속해 있던 위계와 위계 사이를 가르는 경계를 넘어서 덩어리적 시간 속에 잠재하는 재료마다 동등한 에너지를 부여한다. 점차 모든 재료는 감각 세계를 이루는 공인된 재료로서 자리할 권리를 갖춘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는 세상은 확장한다.

#### 준비 운동 셋. 재료와 재료 사이, 그 틈새의 긴장과 불안에 집중하기

오민은 문화적으로 이미 가치화된 공간과 세속적 공간, 두 영역에 속하거나 걸쳐 있는 무수한 재료가 동일한 에너지를 갖도록 만든다. 이는 재료가 위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자유의 동력원이 된다. 그렇다면 오민이 소망하는 비위계적 감각 세계란 재료가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완벽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일까? 노래해야 한다면 혁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와 질서를 폭파하고 끝내 카오스로 회귀하고자 하는 결의일까? 오민은 비위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의 목표는 재료를 우연한 시공간에 무작위적으로 흩뿌리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재료와 재료가 동등한 조건 아래 존재할 때 무수히 발생하는 지금-여기의 순간마다 재료가 서로 맺어가는 관계를 감각하고자 한다.

이때 <폴디드>는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접힌(folded) 작업 위에서 재료의 한층 복잡다단한 관계 구성을 모색하는 시도다. <폴디드>의 두 채널은 직각으로 접합한 두 벽면 위로 각각 투사되는 동시에 하나의 총체적인 영상을 이룬다. 영상의 첫 56초가 흘러가는 동안 여섯 명의 퍼포머들은 각자 주어진 스코어에 따라 분주하게 안무를 수행해간다. 그들의 모습은 양 채널에서 클로즈업 샷과 풀 샷으로 재빠르게 번갈아 제시된다. 다음 56초에서도 상황은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영상은 퍼포머들의 움직임과 함께 일사불란하고 착실하게 이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영상이 재생되면서 장면 간의 전환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는데, 점차 길어지는 영상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단지 각자의 차례를 지키지 않은 채 은밀히 튀어나오는 지금-여기들이 펼쳐질 따름이다. 우리는 화면으로부터 이질적인 재료들이 서로 엮여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때로는 짐작하려고 하지만 그 예상은 줄곧

빛나간다. 지금-여기는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그러나 조금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금-여기는 서로 다른 정도로 뾰족하고 뭉툭한 시간의 단위에 따라 홀연히 등장했다가 곧 종적을 감춘다. 이렇게 시간의 동선은 꼬여가며, 또다시 몇 번째인지 모르는 56초에서 시간은 어지러이 접히고 뭉쳐진 채 움직인다.

〈폴디드〉는 얼핏 동일한 상황의 반복적인 나열로 치부될 수 있을 만큼 미세한 변화를 덩어리적 시간의 층위에서 거듭 시행한다. 영상 속 퍼포먼스는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기보다 스스로 진동하는 것에 가깝게 벌어진다. 어느 한 곳에 안착하지 못하는 작업은 감각 재료 간에 긴장과 불안을 띤 관계 형성을 촉발한다. 하지만 오민의 작업에 있어 긴장과 불안은 움직임의 동력이다. 재료와 재료 사이를 메우는 긴장과 불안은 재료 간의 새로운 배열과 관계 구성의 가능성을 지시한다. 이는 나아가 관객 개인의 유동적인 내면 상태와 한데 섞이면서 작업을 바라보는 때 순간 결코 같을 수 없는 감각 세계를 경험하도록 한다. 재료마다의 지위를 결정짓던 위계는 무수한 지금-여기의 순간마다 위치를 달리하며 권위적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해간다.

오민은 언젠가 불안에 대해 언급했다.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리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늘 궁금했고, 그 근원을 찾던 중 ‘불안’의 감각과 마주하게 되었다. (중략) 불안감을 조절하기 위해 인간들은 예측하고, 계획하고, 정리하고, 훈련하는 기술을 발달시켜왔다고 생각한다.”<sup>6</sup> 도달할 수 없는 곳을 오민의 유토피아로 치환하여 읽는다면 그곳은 바로 비위계적 감각 세계일 테다. 오민은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의 배경이 되지 않는” 위계의 무(無)가 “정말 가능한지”<sup>7</sup> 자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움직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비위계적 감각 세계에 닿고자 하는 〈폴디드〉는 언제나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의 상태에 놓여 있는 미완의 기획이다. 하지만 미완의 유토피아는 역설적으로 이미 완전한 형태의 유토피아일지도 모른다. 오민의 준비 운동은 유한한 러닝 타임의 한계를 넘어 비위계를 향한 무한한 덩어리적 시간의 현현으로 자리한다.

6. BAZAAR, 「오민의 스코어」, 『하퍼스 바자 코리아』, 2017년 5월 4일 자, <https://www.harpersbazaar.co.kr/article/38075>

7. 주 3 참조.